

추억의 군고구마 장수 올겨울 다 어디로 갔나

문효찬(50·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겨울이면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다 준 군고구마 6개를 여섯 형제가 나눠먹던 따뜻한 어린시절이 떠오른다.

이제는 1남 1녀의 아버지가 된 문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추운 날이면 아이들에게 먹일 군고구마를 사가는 게 퇴근길 즐거움이다.

그런데 문씨는 영하 11.5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27일 막내 딸(10)과 추억의 군고구마를 사먹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가 허탕을 쳤다.

작년만 해도 흔하게 보였던 집 주변 군고구마 리어카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문씨는 “겨울철 추억의 대표 먹거리인 군고구마를 파는 리어카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관공서의 노점상 단속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겨울철이면 광주도심 곳곳에서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군고구마 리어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원재료인 고구마 값이 크게 오르는데다 편의점과 카페, 심지어는 족발집에서까지 고구마 판매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겨울이면 용돈벌이에 나섰던 대학생과 서민들이 자취를 감췄다.

1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구마 10kg 가격은 3만3000원이다. 평년(2013~2017년) 가격 2만 267원에 비해 무려 62.8%나 올랐다. 지난해 2만2800원과 비교해도 44.7%나 상승했다.



**카페·편의점 등에 밀리고
고구마 도매가까지 비싸져
인건비도 못건져 판매 포기
대학생 알바 대명사 사양길
구이통 제작업소도 찬바람**

고구마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해 여름 폭염과 기록적인 가뭄으로 고구마의 작황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저장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aT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고구마는 수입이 금지돼 있어 국내에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날 기준으로 군고구마 판매 수익률을 가정해 보면, 인터넷 쇼핑몰 ‘이마트몰’ 등에서 고구마 8~10개가 들어있는 2kg 한 장자를 8990원에 판매하고 있는

데, 5상자(10kg)를 구입해 17개당 1500원을 받고 군고구마를 판매할 경우 인건비도 남지 않는다.

총 매출은 7만5000원으로, 고구마 구입비 4만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인 셈이다.

군고구마 리어카 구입비와 연료비도 만만치 않다. 군고구마 리어카는 불을 피우는 재료에 따라 뿔감용과 LPG용으로 나뉘는데, 뿔감용이 27만원, LPG용은 32만원선에 판매된다.

또 뿔감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공사장 등에서 남은 목재 등을 얻어 재료비가 들지 않지만 LPG용은 20kg 가정용 LPG 가스(4만원)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군고구마 판매에 나선 것도 군고구마 장사들이 사라진 이유다. GS25 등 편의점에서는 직접 구운 군고구마를 1500원에 팔고 있으며, 일부 커피숍에서도 크기에 따라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팔고 있다.

여기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족발집 등 식당 등에서도 가게 한 칸을 이용해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다.

‘군고구마 리어카’ 제작업체도 발길이 뜸 끊겼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군고구마 리어카를 제작·판매하는 류희섭(68)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군고구마 통을 구하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때는 겨울이면 70~80개씩은 팔렸다”면서 “올해는 군고구마 리어카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봄을 기다리며...입춘방 쓰기

입춘(立春)을 사흘 앞둔 1일 광주 서구청 민원실에서 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반 회원들이 중흥어린이집 어린이, 주민들과 함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입춘방(立春榜)을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연녀 5살 아들 폭행 실명케 한 20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인정...징역 18년

방치한 친모 원심으로 6년 선고

내연녀의 5살 아들을 폭행해 시력까지 잃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폭행을 방기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이자 피해 아동 친모인 최모(36)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할 당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 폭행으로 피해아동이 이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하면 피해 아동이 사망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을 하는 등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부 피해는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친모 최씨도 아들을 폭행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2016년 10월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모 최씨는 아들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방치한 혐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납 기준치 10배 초과 ‘납시 붕돌’ 제작·판매업자 철퇴

환경 파괴·생태계 교란
목포해경, 잇따라 검거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납이 포함된 납시용품을 제작해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1일 목포해양경찰은 납 함유 허용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납시용(납시추)을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송모(여·71)씨와 B업체 대표 서모(57)씨를 붙잡아 납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나주에서 금속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납시용(납시 추)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광주 서북구에서 납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납이 다량 함유된 납시용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납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납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함유 허용기준을 kg당 9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송씨 등이 제작한 납시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허용기준을 최대 10배(900mg)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대체재인 주석에 비해 10분의 1 수

준의 가격으로, 철에 비해 녹이 잘 슬지 않아 납시용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압수수색한 송씨의 공장에서는 납시용품을 개별 포장한 봉지 19만6828개(1개 700g)가 발견됐다. 해경은 일반 납시용 품종에도 흘러들어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판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최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바다 납시 인기에 따른 납시가격 증가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납시용품 판매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죽음 부른 가상화폐

저액 잃은 대학생 우울증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20대 대학생이 우울한 감정을 호소하다가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0분경 부산의 한 주택에서 A(20)씨가 방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크게 낙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때 2억여 원까지 금액을 불리는 등 투자에 성공했지만 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대

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가족에게 우울감을 호소해 왔고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지역 명문대학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상반기 휴학을 한 뒤 학교 휴학 부산에 내려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외에 A 씨가 목숨을 끊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협뉴스

쫓겨난 회사 양심 품고 도둑질



직원들과 불화로 회사에서 쫓겨난 20대 여성이 양심을 품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24)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산구 일개동 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 침입해 근로계약서와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서류철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 쇼핑몰에 입사한 한 달간 근무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직원과의 불화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어 방범을 저질렀다”고 진술.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공장 매매 (소촌공단)

◆ 1급 자동차 정비공장 ◆

소촌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 ① 토지 430평 건물 112평
- ② 운수 IC 5분
- ③ 신축건물 (2015년 준공)

◆ 매매가 : 16억3천 사정상 급매 (용 6억4천)

010-6670-9800 062)382-55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1월초 개강)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북구 신원동 용두주공아파트 (24평) 감정이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 ②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감정이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이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서구 금호동 토지매매 매대가 13억5천 8백
-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7백 → 최저:1억8천7백
- 7) 남구 월산동(근린주택) 감정:9천6백 → 최저9천6백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 11) 전남 화순군 춘양면 (토지) 토지:984평 감정:5천3백 → 최저:5천3백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서구 유촌동 벼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 ⑤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⑦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⑧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⑪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